복음을 함께 나눔

멀린 알 리버트 장로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복음을 나누어야 할 책임은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 즐거운 임무입니다. 이 책임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갈릴리 근처의 산 위에서 열 한 명의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 : 19~20)

사도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선교 사업이 활발히 행해졌으며 로마의 지배권에 있는 여러 나라에 지부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멀리 스페인까지 여행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투옥되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업을 인도할 수 없게 되자 배도가 마치 불길처럼 온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혼란의 파도를 타고 구원을 위한 신권 의식과 많은 복음 원리가 변경되었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권능이 거두어졌습니다. 세상은 오랜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로 빠져 들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쳐 주신 귀중한 복음 진리 중 일부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다시 인류를 따스하게 감싸고 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 봄에 몸소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때부터였습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번역되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와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사도들과 그들의 인도와 권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충만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들어 있는 모든 계시들은 하나 하나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며 영생의 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는 하늘에서 보내 주신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지시와 신앙을 키워 줄 영감과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회복된 진리는 지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도록 도우라는 책임을 부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를 받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을 경고할 책임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81)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같은 원리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어떤 경고를 해야 할까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겐가 위험이나 다가오는 악을 조심하도록 말해 주는 것을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인 신권 및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식이 교회에서 행해지며, 구원은 다른 어떠한 종교나 철학 또는 체제를 통해서도 성취될 수 없고, 거룩한 신권의 권능 아래 행해지는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원리를 통해서만 올 수 있음을 간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하면 그는 불길이 번져감으로써 위험에 빠지게 될 모든 사람에게 소리쳐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홍수로 인해 다리가 쓸려 내려간 것을 발견했을 경우 그곳에 서서 다가오는 자동차들을 향해 위험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인다는 것이 어려운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참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와 같은 관심을 보여 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우정과 관심은 진지하며 가식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진지함이 없다면 그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지하지 못한 관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 또는 이웃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음 몇 가지 제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매주 갖는 가정의 밤 모임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가정의 밤 모임을 하는 도중 기회가 있으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번역된 고대 기록을 읽은 이후 내 생활은 상당히 변화되었습니다. 몰몬경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강 규칙의 일부입니다. 그것에 대해 좀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활을 변화시킨 책에 대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친구가 관심을 갖기에 가장 적절한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를 선교사에게 소개하면 됩니다. 그가 일단 관심을 보이면 그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대하거나 교회로 초대하여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토론에 매번 참석하고 그를 교회 모임에 데리고 감으로써 여러분의 친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마지못해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그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의 친구나 이웃에게 경고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임무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몰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인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너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은 하늘 아래 다시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한 하나님이시고 끝이 없으신 유일하시며 참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가르침이니라."(니파이이서 31 : 20~21)

우리가 모두 친구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결심하고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 신중하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림스 자매의 외로웠던 경험과 기도에 대한 응답

신디 스노우 자매(서울 서 선교부)

저는 석 달 가량 시골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이 선교사 훈련원에서 삼 개월간 훈련받은 이후 흔히 느끼게 되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고 언어도 아직 서투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선교부에 처음 부름받아 왔을 때 무척 외로웠습니다. 저의 가족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 즉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상쾌한 가을 저녁, 멀리 논이 내다 보이는 현관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집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이토록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시계를 보라고 하는 아주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몇 시 일까?"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빨리 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날 아침 8시 15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속에는 부모님이 함께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계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으며, 그외의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수많은 모습과 영상들이 밀려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조부모님과 친구들도 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함께 만나 기도하시는 예언자와 십이사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성전에서 각기 다른 수많은 언어로 원형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통

가정에서 함께 무릎 꿇고 매일 드리는 기도에서 한 어린 아이가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가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추운 가을 밤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한국에 있는 한 외로운 선교사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선교사 기간 내내 용기를 줌으로써 도와주었던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

신앙

아야꼬 하세가와 자매
일본 오사까 스테이크 아수까 지부
상호부조회 제1보좌

13년 전, 저는 수습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매 선교사들을 만나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 년 후 저는 회원 선교사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병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버스로 40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가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기도와 성신의 인도로 우리는 몰몬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대리로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가는 데만 기차로 세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으며 의미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날에도 불구하고 한때 큰 유혹에 빠져 교회에서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회원들의 격려와 회개의 원리를 통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연령이 되자 저는 결혼하는 문제가 조금씩 걱정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만날 신랑감을 그분들께서 찾아 주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으며 몇몇 훌륭한 신랑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오히려 제게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한층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의 어느 형제는 그러한 상황이란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독신 성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일본 지역 대회에서 어떻게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너를 위한 사람"이라고 제게 분명히 말해 주는 영의 음성을 어떻게 느끼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두 달 후 우리는 동경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몰몬경 선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이 우리에게 두 주 내에 실행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 스미스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이라고 설명하신 몰몬경을 일본 전역에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지만 몰몬경에 가득 찬 약속의 날에 대한 소망과 교회 회원들의 격려와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는 친척, 직장 동료, 친지, 택시 기사, 기관사, 미용사, 체조 교사, 우체부, 아나운서, 텔레비전 방송국 직원 및 선교사들에게 128권의 몰몬경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참된 교회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으므로 때때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혼한 지 칠 년 후, 우리는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임신이었으므로 우리는 이번 임신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해서 두려웠으며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한번은, 우리가 교회 회원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막 넘겼을 때, 제 남편이 병이 나서 두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어떤 일이든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하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있으면서도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제 남편은 퇴원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사고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곧 저는 임신 8개월에 접어들었으며 조산할까봐 두려워서 저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저는 한 달 이상 밤낮으로 정맥 주사로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겨우 극복해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점 때문에 아기는 제왕절개 수술에 의해 분만되었으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아기를 갖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도와 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신다"(니파이일서 3 : 7 참조)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해 냄으로써 더욱 강하게 끝까지 노력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험한 길도 성령의 인도로 활짝 열려지며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음

댄 브래드 포드
홍콩 빅토리아 와드

여호수아는 말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 함께 모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에 보여 주었던 한 가지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쉽게 거짓 신들을 추종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커다란 축복과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으로 삼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5)라고 한 권고는 나에게도 영향을 주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12 : 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복음 원리가 걸려 있는 중심 틀인 그 말씀이 주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이 첫째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무엇 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했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경전에서 수없이 많이 해 주셨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예로 들면 아담과 이브,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한나, 룻, 에스더의 이야기 등은 모두 내 생활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상기시켜 주는 훌륭한 예가 됩니다. 몰몬경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생활 보다는 주님을 진정 사랑했던 예언자 니파이는 주님을 생활의 초점으로 삼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형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을 도와 레이밴의 놋쇠판을 가져오도록 명함을 받았을 때와 그의 형들이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 불평할 때에 니파이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 : 7)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이밴의 목숨이 니파이의 손에 달린 결정적인 순간에도 니파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망설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성신의 속삭임을 주의 깊게 듣고 주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린 니파이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기록과 주님에 대한 니파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니파이는 주님께 먼저 봉사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흔들림 없는 결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니파이의 용기와 순종을 생각하면서 나는 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도록 명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스런 품 안으로 나아 가는 이 친절하고 온유한 남자에 대해 가장 큰 존경심을 항상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일에 나를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사탄이 내 생활에 많은 장애물을 간교하게 설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왕국에서 멀어지는 길로 접어들도록 거짓 신들을 따르게 유혹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웃과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음으로써 올바른 길을 여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생활을 면밀히 점검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

사랑이 담긴 과자

마거렛 스미스 자매

때는 12월 24일 오후 2시였습니다. 과연 그 아주머니의 집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들이 방문하도록 허락했을지라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소 놀랐습니다. 그들은 방문하기 전에 그 아주머니에게 드릴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습니다. 중국 사람인 아주머니는 "누구세요?"라고 물은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선교사입니다."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두 젊은이가 인사장이 놓여 있는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집에서 만든 오트밀 과자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사람은 중국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인인 두 젊은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아들 역시 홍콩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으므로 그분은 아들을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아들이 왜 몰몬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그가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왜 2년간이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것은 첫번째 크리스마스에 동방의 박사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께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선교부에서도 그분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봉사하고 있는 선교부에서는 그러한 전통에 따라

이 사랑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주머니는 아들이 이 젊은이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봉사하려는 결심을 한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얼마나 많이 되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담긴 과자"의 프로그램은 홍콩 선교 부장의 부인이신 플로라 타이 자매님의 구상이었습니다. 1,800개의 과자가 구어지고 포장되어서 선교부 선교사들에게 전해져 중국 선교사들의 부모님에게 회원이든 아니든 과자가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각 와드의 감독님 댁에도 과자가 한 접시씩 전달되었는데 감독님들도 선교사들이 바쁜 일과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그분들을 기억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이후로 선교부는 과자를 받은 후 이러한 사려깊은 행동에 감명받은 분들로부터 카드와 짧막한 편지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부모님 중 몇 분은 해임되는 선교사들과 그분들을 위해 선교부장님 댁에서 열린 환송 저녁 식사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전에 지녔던 느낌을 바꿨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이 더 오래 선교 사업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

선교 사업

이 언송 자매

선교사로 나온 지 한 달 후 우리는 동반자를 서로 바꾸어 전도를 했는데 저는 선교사가 된 지 얼마 안된 김 영희 자매와 전도하러 나섰습니다. 첫번째로 문을 두드린 우리는 한 고등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한 남자가 나오더니 몰몬경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선교사가 된 지 며칠 안된 동반자는 "갑시다."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전도하라. 그러면 그가 몰몬경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바뀌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의 손에 몰몬경을 들려 주었습니다. 처음과는 매우 달라진 표정으로 그 남자는 정중히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사람을 변화 시킨 힘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적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버스에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으므로 저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계획한 날이 되자 저는 버스를 탔으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이야기한 사람들은 모두 몰몬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몰몬경 열 여섯 권을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와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은 몰몬경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몰몬경을 주기 전에 또 그 책을 전달한 후에 저는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기적은 준비와 겸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89년 1월 1일, 우리는 버스를 두 시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리를 다친 자매가 집에 가는 것을 도와 주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었지만 버스 운전사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으므로 이번 한번은 제발 양해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은 음성이 저를 재촉했으므로 마지 못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뭐라구요? 303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 303번 버스요, 여기서 내리면 그 버스가 올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버스는 거의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제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반응에 너무 놀라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갑자기 저는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타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내려서 303번 버스를 타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성신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곡동에 살 때 저는 어느 날 동반자와 함께 약속 장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우리가 내리려고 할 때 작은 속삭임이 들렸는데 어떤 아가씨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었으므로 그 아가씨에게 소책자를 주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왜 제가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령이 왜 저에게 속삭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일을 마치고 동반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그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다시 저는 그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어 복음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10개월 후 그 아가씨는 침례받았으며 지금은 활동적인 회원입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선교 사업이 끝난다는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선교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잘 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저는 저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을 것입니다. *

신학 연구원 입학과 졸업을 축하합니다

서울 동 신학 연구원과 광주 신학 연구원은 3월 3일, 서울 서 신학 연구원은 3월 4일,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는 3월 10일에 각각 입학식을 겸한 졸업식을 가졌다.

이들 행사에는 지역 대표 및 교회 교육 기구 대표와 함께 많은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부산 신학 연구원에서는 35명,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15명, 동 신학 연구원에서는 11명, 광주신학 연구원에서는 10명의 졸업생이 각각 배출되었다.

특별히 이날 서 신학 연구원 동문회장상을 받은 이 관자 자매는 7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한번의 결석도 하지 않고, 수업에 참석해서 타의 귀감이 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 "복음을 깨달아 더욱 변화된 삶을 이루는 이곳이 좋다."라고 말씀하여 참석한 많은 회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또한 광주 신학 연구원에서는 금성 지부 김 종운, 김 영순 부부가 나란히 졸업을 하여 젊은 후배들의 모범이 되었다. 신권 지도자들은 축사를 통한 말씀에서 교회의 발전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신학 연구원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회원들의 신학 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 일주일에 한 과목이라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서울 서 신학 연구원에서는 모든 모임이 끝난 후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떡 파티가 있었다. *

서울 서 신학 연구원

서울 동 신학 연구원

부산 신학 연구원

광주 신학 연구원

온누리 합창단 발족

한국의 신권 역원들은 수년 전부터 성도들로 구성된 훌륭한 합창단을 조직하여 교회 회원들은 물론 이나라 모든 백성에게 아름다운 화음의 합창을 들려주기를 소망하여 왔다.

이에 작년 11월부터 지역 대표 및 음악에 조예가 있는 형제 자매들이 수차에 걸친 협의 모임을 한 결과 말일성도 합창단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오디션을 통해 합창단원을 공개 선발하여 현재 2차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합창단의 공식 명칭은 "온누리 합창단"이라 정하였다.

온누리 합창단의 발족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음악회가 지난 3월 5일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신권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합창단은 주옥 같은 우리 가곡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명곡들을 합창, 독창, 중창, 악기 연주 등으로 선보였으며 참석한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장차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현재 합창단 고문에 한 인상 형제, 김 신환 형제, 지휘 정 대판 형제, 반주자 이 희경 자매, 단장 홍 무광 형제, 부단장 허 병석 형제, 사무장엔 기 영서 형제가 수고하고 있다.

현재 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합창단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들은 다음 주소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 *

㉮ 133-600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온누리 합창단 앞

기사 제공 : 윤 현주 자매

온누리 합창단

홍 성미 자매, 유타주 미드베일 스테이크 한국 지부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음

홍 성미 자매는 홍 한표 형제와 황 영자 자매의 다섯 자녀 중 네째 자녀이며 가족이 모두 1979년 대전 선화 와드에서 침례받았다.

홍 성미 자매는 침례받고 나서 한동안 활동이 저조한 회원이 되었지만 언니들과 오빠가 선교 사업을 통해서 보여 준 훌륭한 모범과 가족들의 사랑으로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다.

홍 자매는 1989년 7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미드베일 스테이크 한국 지부에서 상호부조회 영적인 생활 공과를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면서 잘 준비하여 1990년 1월 31일 프로보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3주일 동안 훈련을 받고 지금은 LA선교부에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는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홍 자매는 미드베일 스테이크의 한국 지부가 다시 설립된 이후로 한국 지부에서 최초로 부름받은 선교사이다. *

기사 제공 : 미드베일 스테이크 한국 지부 김 우열 지부장

홍 성미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전반기 대회

1990년도 서울 북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3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회장의 감리하에 녹번 와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스미스 회장 부부를 비롯하여, 파머 성전장 부부, 최 욱환 서울 지역 대표 부부, 그리고 신 호범 선교부장 부부 등 많은 신권 역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서 원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하여, 말씀한 연사들은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됨과 위대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스미스 자매는 토요일 모임에서 상호부조회 창립 148주년 기념 케익과 구도자 소개 카드를 나누어 주고 모임이 끝난 후 구도자 소개 카드(70매)를 회수하여 서울 선교부에 전달하였다.*

제114기 한국 선교사 훈련원 수료

(90. 3. 12~23)

서울 선교부
서 정훈 장로(대명 와드)
이 준호 장로(대명 와드)
장 용은 장로(온천 와드)

서울 서 선교부
김 대성 장로(충무 지부)
조 일 장로(중앙 농아 지부)

대전 선교부
도 재욱 장로(구포 지부)
박 정록 장로(수성 와드)
윤 경주 자매(노량진 와드)
정 재권 장로(수성 와드)
정 옥선 자매(용현 와드)

부산 선교부
박 중언 장로(중앙 농아 지부)
조 영기 장로(목포 와드)

부산 스테이크 전반기 대회

1990년도 부산 스테이크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3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홍 성주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하에 부산의 수정 와드와 울산의 방어진 와드에서 분리 개최되었다.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유하라. 쉽게 권고대로 행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라."(앨마서 8:23)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홍 성주 스테이크 부장은 "연륜이 쌓인 지혜와 경험과 영감력을 가진 연로한 회원들께 감사하라"고 하였으며, 승영에 이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기사 제공 : 장 미경 자매

홍성·대천·서산 지역을 위한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 개설

천안 지방부 홍성·대천·서산 지부 성도들과 구도자를 위한 신학 연구원 대학부 과정이 90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어 3월 6일부터 홍성 지부에서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 성도들의 신앙과 간증을 강화하고 선교 사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 프로그램의 금년 1학기 수업은 동 신학 연구원의 조 만구 형제가 담당하는 교리와 성약 및 교회사이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다.*

기사 제공 : 이 정은 지방 부장

신학 연구원 개설을 위한 홍성·대천·서산 지부 합동 노변의 밤을 마치고

114기 선교사